

반도체 수급 차질에 현대차·기아 9월 판매 ‘뒷걸음질’

전년동월비 현대차 22%·기아 14% 감소

코로나 재확산...경영 불확실성 지속 우려

현대차와 기아의 9월 판매 실적이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등의 여파로 감소했다. 4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현대차는 9월 국내 4만3천857대, 해외 23만7천339대 등 총 28만1천196대를 판매해 지난해 동월 대비 판매 실적이 22.3%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34.6%, 해외 판매는 19.4% 각각 하락했다.

반도체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데다 추석 연휴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세단은 그랜저 3천216대, 쏘나타 5천3대, 아반떼 5천217대 등 총 1만3천477대가 팔리며 지난해 동월 대비 48.0% 급감했다.

레저용 차량(RV)은 지난달 29일 출시한 첫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

스퍼가 208대 팔린 것을 비롯해 펠리세이드 3천290대, 싼타페 2천189대, 투싼 2천93대, 아이오닉5 2천983대 등 총 1만3천212대가 팔렸다. 지난해 대비 22.0% 감소한 수치다.

포터는 4천916대, 스타리아는 2천903대 팔렸고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1천716대가 판매됐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3천892대, GV70 1천805대, GV80 1천290대 등 총 7천633대가 팔려 지난해보다 25.8% 감소했다.

기아의 경우 9월 국내 3만5천801대, 해외 18만7천792대 등 22만3천593대를 판

매해 지난해 동월 대비 판매 실적이 14.1% 감소했다. 국내는 30.1%, 해외는 10.1% 줄어든 수치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스포티지(4천386대)로, 2개월 연속 기아 월간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스포츠지를 포함한 레저용 차량(RV) 모델은 쏘렌토 3천820대, 카니발 3천437대, EV6 2천654대 등 총 1만9천219대가 팔려 지난해 동월 대비 30.6% 감소했다.

승용 모델은 K8 3천188대, 레이 3천30대, K3 2천130대 등 지난해보다 24.9% 줄어든 1만2천969대가 판매됐다.

상용 모델은 봉고III가 3천467대 팔리

는 등 버스와 트럭을 합해 총 3천613대가 판매됐다.

해외에서는 스포티지 2만4천131대, 셀토스 2만1천288대, 리오(프라이드) 1만9천329대 등의 순으로 팔렸다.

전체적으로는 스포티지가 2만8천517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만3천918대, 리오(프라이드)가 1만9천329대로 그 뒤를 이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달도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빠른 출고가 가능한 모델을 우선 생산하는 등 생산 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EV6와 K8, 5세대 스포티지 등 최근 출시된 경쟁력 있는 신형 차량을 앞세워 판매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10월 기아 전시장 방문자 중 이벤트 참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LG 식기세척기 오브제 컬렉션, 삼성 갤럭시 시 워치 4 등을 증정한다.

또 10월 기아 전 차종 출고고객 중 M할부 이용 고객에 최저 1.5%(12개월), 최장 60개월(2.9%)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10년 또는 15년 경과 노후차 보유 고객이 차량 구매 시 최대 50만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기수회기자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GV60' 공개

1회 충전시 최대 451km 주행...키 없이 차량 출입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 가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인 GV60을 선보였다. <사진>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한 뒤 선보인 첫 전동화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GV60 디지털 월드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열고 '당신과 교감을 위해'를 주제로 한 론칭 영상을 공개했다.

쿠페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스타일로 고성능 전기차(EV)의 이미지를 강조한 GV60은 전장(길이) 4천515mm, 전폭(너비) 1천890mm, 전고(높이) 1천580mm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축간거리)는 기아 EV6와 같은 2천900mm다.

스탠드 후륜·사륜 모델과 사륜구동 이 기본 적용된 퍼포먼스 모델 등 총 3가지로 운영된다.

모두 77.4kWh 배터리가 장착되며 스탠드 후륜 모델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451km다.

퍼포먼스 모델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을 높이는 부스트 모드가 적용됐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10초간 최대 합산 출력이 360kW까지 증대되고 4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한다.

제네시스는 GV60에 차량이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키 없이도 차량 도어를 잠금·해제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능을 처음 도입하고 지문 인증 시스템과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등을 대거 적용해 사람과 차량의 교감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도 처음 선보였다. 배터리 온도가 낮을 때 출력 성능 확보를 위해 예열하고 고객이 급속 충전소를 검색하면 충전소 도착 전 필요에 따라 배터리 온도를 최적화해 저온 환경에서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이다.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했고 350kW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완속 충전 용량을 기준 7.2kW에서 11kW로 늘려 충전 시간을 단축했다.

아이오닉 5나 EV6처럼 배터리 전원으로 외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V2L 기능도 제공된다.

제네시스는 올해 4분기부터 주차장 바닥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 진입시 비접촉 형태

로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무선 충전 인프라 시범 사업에 GV60을 활용할 예정이다.

GV60에는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간 콘텐츠가 연동되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처음 탑재됐으며 덴마크의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인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도 브랜드 최초로 적용, 17개의 스피커로 고급 사운드를 전달한다.

이밖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됐다.

GV60은 울산공장 제네시스 전용 라인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국내 계약은 오는 6일부터다.

가격(친환경차 세제 혜택·개발소비세 3.5% 반영 기준)은 스탠드 후륜 모델 5천990만원, 스탠드 사륜 모델 6천459만원, 퍼포먼스 모델 6천975만원이다.

제네시스는 오는 14일까지 압구정 카펫프롬에서 GV60 특별전시를 한다. /기수회기자

“코로나19 극복 기아가 함께합니다”

AutoLand광주 파트장협의회, 이웃돕기 물품 전달

기아 AutoLand광주 파트장협의회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들을 돕기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외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돕고자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편백나무 배개를 제작해 전달했다.

파트장협의회 회원들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문화협회 회원들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할 편백나무 배개 제작에 참여했

으며 이날 전달식을 통해 200개의 편백나무 배개를 광주장애인문화협회와 광주 소재 동태봉마을 주민에게 전달했다.

정관중 기아 AutoLand광주 파트장협의회장은 “이날 전달된 편백나무 배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기아 AutoLand광주 파트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수회기자



1일 전달식에 참여한 기아 AutoLand광주 파트장협의회 회원들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기아 제공>

벤츠코리아, 첫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 2종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더 뉴 GLE 350 e 4MATIC과 더 뉴 GLE 350 e 4MATIC 쿠페를 공식 출시했다. 두 모델은 지난 2019년 완전 변경된 벤츠의 프리미엄 SUV 라인업 '더 뉴 GLE' 패밀리의 첫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이다.

4일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두 모델은 최대 출력 211마력(PS), 최대 토크 35.7kg.m를 발휘하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최고 출력 100kW, 최대 토크 44.9kg.m의 성능을 내는 새로운 전기 모터를 결합해 주행 성능이 뛰어나고 하이브리드 전용 자동변속기가 적용돼 에너지 효율도 높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외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